

# 英正年間の 時代相과 小品體 散文의 擡頭

金 聲 振\*

## 目 次

- |                            |                      |
|----------------------------|----------------------|
| I. 序 論                     | III. 學風과 世界觀의 多元化 現象 |
| II. 身分體制的 動搖와<br>疏外文人群의 動向 | IV. 結 論              |

## I. 序 論

小品體 散文이란 短小한 文章에 清新한 文體로 身邊雜事를 기록하면서 섬세한 자기 감정을 표현했던 朝鮮後期 隨筆文學의 한 갈래이다. 漢文學에서의 小品이란 주로 明末 公安派에 의해 주도된 明末清初의 短文小記를 가리킨다. 明末 公安派는 理念과 格式의 拘束에서 탈피하여 자유롭게 性靈을 發現시키는 것을 文學의 理想으로 추구하였기<sup>1)</sup> 때문에 이들의 小品은 종래의 載道之文과는 달리 文學의 독자적인 가치와 예술성을 중시하는 내용이 주류를 이룬다.

公安派를 중심으로 한 이들의 새로운 文風은 朴趾源·李德懋·朴齊家·李鉉·金鑣 등과 같이 소외계층에 있던 일군의 문인들에게 수용되어 그들의 문학활동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들은 小品體 散文을 통하여 자신들의

\* 釜山大學校 漢文學科 講師

1) 倪志憫; 「中國散文演進史」, 長白出版社, 臺北, 1985, p. 416.

性靈과 個性을 자유롭게 표현하였으며, 뛰어난 抒情性和 斬新한 言語驅使를 통해 當代 文壇에 새로운 기풍을 진작시켰다.<sup>2)</sup>

이에 따라 典雅함을 중시하고 俗談이나 俚語의 사용을 기피하던 序跋이나 記文과 같은 正統散文에 있어서조차도 俗談과 俚語가 사용되고 風俗의 문학적 수용이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論辨이나 의사 전달에 치중하던 서간문에 있어서도 書簡文을 짓는 것 그 자체를 문학창작 행위로 간주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문풍에 대한 집권층의 반응이 곧 文體反正이라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에서는 小說類만을 反正의 대상으로 주목하였을 뿐 小品體 散文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심지어는 小品體 散文과 小說을 동일선상에서 이해하고 있기까지 한 실정이다. 하지만 文體反正 당시 小品體 文章家라고 비판받은 이들 가운데 李德懋와 朴齊家は 이렇다 할 小說을 남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李德懋 같은 이는 오히려 小說의 弊害를 비판하기도 했다.<sup>3)</sup> 이런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문체반정 당시의 反正의 주된 대상은 小說類라기보다는 오히려 民間傳承의 요소의 과감한 수용에 의해 날로 卑俗化되어가고 있다고 여겨졌던 序跋이나 記文, 尺牘과 같은 正統散文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小品이라고 할 수 있는 작품들이 英正 이전에 없었던 것은 아니다. 晚明小品의 元祖라고 할 수 있는 蘇軾의 文風이 문단을 풍미하던 高麗後期の 散文들 가운데 상당한 작품들 역시 小品的 性向을 다분히 지니고

2) 여기서 말하는 小品體 散文이란 英·正年間に 지어진 抒情的 短文小記로서 '今時'와 '朝鮮'을 중시하고 寓言的 表現과 諧謔美가 두드러지는 작품을 의미한다. 敘述技法上으로는 問答과 反復이 많으며 俗語使用과 風俗·說話의 受容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들 문장은 中國의 小品이나 麗末鮮初의 小品 등과 뚜렷하게 구별된다. 일종의 집단적 운동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들 散文을 일단 小品體 散文이라 부르고자 한다. 대체로 보아 이들 散文은 軟隨筆的 性格의 글이기는 하지만 당시의 '隨筆'이란 용어는 樣式的 개념이라기보다 作者의 執筆姿勢를 의미하는 성격이 강했으므로 隨筆이란 용어 대신 散文이란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3) 李德懋의 소설비판은 「靑莊館全書」卷5 嬰處雜稿1〈歲精惜譚〉에 가장 잘 드러나며 「靑莊館全書」卷53 耳目口心書6에도 같은 내용이 보인다. 그런데 李德懋가 말하는 小說이란 街談巷說이 아닌 虛構의 작품을 의미한다. 「歲精惜談」에서 「古置稗官以收野談 雖多叢瑣 君子有取 傳奇志怪 博物者取之 惟此小說 上不及黨論清談詩律 中不及稗官野談 下不及傳奇志怪」라 하여 稗官野談, 傳奇志怪, 小說을 각기 구분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보인다.

있다. 이후로도 간간히 小品의 성향의 글들이 지어지긴 하였지만, 韓國漢文學의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때 小品이란 용어는 文體反正을 전후로 한 한정적인 시기에만 사용되었다. 用語의 사용과 文風은 별개의 문제이긴 하지만, 현상적으로도 英正年間に 小品體散文이 집중적으로 지어졌으며 이후로는 쇠락의 과정을 밟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小品體 散文이 그만큼 英正年間の 時代相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II. 身分體制의 動搖와 疏外文人群의 動向

英正年間に 일어난 여러가지의 사회적 변화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은 신분체제의 동요라고 할 수 있다. 신분체제의 동요는 兩班戶의 激増과 常民戶의 激減, 그리고 中人層의 세력화로 특징지어진다.

鄭奭鍾은 蔚山府 戶籍臺帳을 바탕으로 朝鮮後期 蔚山地域에 나타난 신분체제의 동요현상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에 의하면 1729년에 26.29%에 불과하던 兩班戶數가 1765년에 40.98%, 1804년에 53.47%, 1867년에는 무려 65.48로 약 140년간에 배가 넘는 비율로 증가하고 있다. 반면에 1729년에 59.78%와 13.93%에 달하던 常民戶와 奴婢戶가 1765년에 57.01%와 2%로, 1804년에 45.61%와 0.92%, 1867년에는 33.96%와 0.56%로 각각 줄어들고 있다.<sup>4)</sup> 이러한 통계자료를 볼 때, 18·19세기에 걸쳐 奴婢戶에서 常民戶, 常民戶에서 兩班戶로의 꾸준한 身分上昇이 이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위의 분석이 한 지역의 戶籍臺帳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이것이 朝鮮後期の 일반적인 사회현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도 있겠으나 다음의 기록들을 보면 이러한 현상이 한 지역에만 국한되어 나타났던 것이 아니었음이 드러난다.

顧亭林이 온 천하가 生員이 되고 있는 것을 우려한 바와 같이 나는 온 나라가 양반이 되고 있는 것을 우려한다.<sup>5)</sup>

民戶 가운데 약간 富實에 가까운 부류들은 간교한 관리들과 짜고 다반사로

4) 鄭奭鍾：朝鮮後期 社會身分制의 變化, 朝鮮後期社會變動研究, 一潮閣, 1983.

5) 丁若鏞：「與猶堂全書」I 〈上跋顧亭林生員論〉, 景仁文化社, p. 296, '亭林憂盡天下而爲生員 若余憂通一國而爲兩班'

謀避하니 이것이 10에 2, 3이 되며, 幻學을 冒錄하여 良役을 면하기를 피하는 것 또한 반이 된다.<sup>6)</sup>

요즈음 世道가 점차 썩어가서 富實한 백성들이 모두 軍役을 謀避하고 奸使任掌과 符同해서 뇌물을 쓰고 戶籍을 幻弄해서 幼學을 冒錄한다. 이렇게 해서 반드시 免役하고 혹은 다른 마을로 옮겨 피하여 스스로 兩班戶처럼 한다.<sup>7)</sup>

약간 產業이 있거나 氣骨이 있는 자는 모두 兩班을 자처한다.<sup>8)</sup>

은 백성이 양반이 되고 있다고 우려할 정도로 신분체제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었던 것이다. 幼學을 冒錄하여 良役을 면하는 것이 民戶의 반으로 불 만큼 常民戶에서 兩班戶로의 상승이 대량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中人을 위주로 한 常民戶의 부의 축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상공업의 진전과 농업 생산력의 발전에 따라 常民들이 富力을 지니게 되자, 이를 바탕으로 冒稱幼學·僞譜·賈鄉 등의 방법을 통해 양반으로의 신분상승을 피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가고 있었던 것이다.<sup>9)</sup>

常民들의 兩班으로서 신분상승과 함께 中人의 세력화 현상도 朝鮮後期 身分體制 動搖의 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中人이란 좁은 의미의 中人으로 불리우던 譯官·醫官 이외에 兩班에서 탈락된 庶孽, 그리고 胥吏 등을 통칭한 것이다.<sup>10)</sup> 이 가운데 譯官은 對淸·對日貿易으로 거대한 富를 축적하였으니 朴趾源의 〈許生傳〉에 등장하는 卜承業은 國際貿易으로 致富한 譯官을 모델로 한 것이다. 이들의 무역행위는 국가가 인정하였을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자본을 대어주기도 하였다. 「雷橋別集」의 漫錄에 ‘우리나라 譯官이 행차를 따라 복경을 가게 되던 으레히 戶曹의 은을 빌려 唐貨를 사가지고 와서, 이를 팔아 戶曹에 2할을 가산하여 갚는다. 그런데 남는 이익이 적은 것이 아니어서 그것으로 치부들을 하는 것이다’<sup>11)</sup>라 한 것은 이

6) 「日省錄」卷194, 正祖10년 丙午 1月 22日 丁卯 〈訓練判官 劉漢坤所懷〉, ‘民戶中稍近富實之類 則因緣奸吏 多般謀避 十之一二 冒錄幼學 圖免良役 又居其半’

7) 앞과 같은 곳의 〈武兼盧尙樞所懷〉, ‘近者 世道漸汚 富實凡民 舉皆謀避軍役符同奸吏與任掌 期於行貨 幻弄戶籍 冒錄幼學 必有免役 或有移避他邑 自同班戶’

8) 洪儀泳; 〈軍丁事宜〉, 「北關紀事」, ‘稍有產業者 略有氣骨者 皆以兩班自處’

9) 韓沔劬; 李朝後期の 社會와 思想, 乙酉文化社, 1961.

金容燮; 朝鮮後期農業史研究 I·II, 一潮閣, 1971·1972.

10) 鄭玉子; 朝鮮後期文化運動史, 一潮閣, 1988, p. 190.

11) 「雷橋別集」卷4 漫錄5, ‘我東譯官之隨使行人燕都也 每貸戶部白金而行 質唐貨以來發賣以償戶部十二 餘利不賞 以之致富’

러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얻어진 경제력을 바탕으로 中人들은 그들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仁顯王后를 廢出하고 張禧嬪을 왕후로 삼은 己巳換局에 대해 이는 肅宗이 譯官을 중심으로 한 中人勢力의 기지기반을 기틀로 南人勢力과 결탁하여 老論政權을 뒤엎었던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을 정도이다. 己巳換局에 이어 甲戌換局에서도 이들은 많은 자금을 동원하면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庶孽層과 武人들은 譯官처럼 換局企圖의 資金을 담당하진 않았지만, 이러한 일련의 정치적 흐름에서 換局企圖의 전위부대로서 활약하였다. 이러한 사실들로 미루어 18세기 이후 中人들의 세력이 만만치 않았음을 알 수 있다.<sup>12)</sup>

이들 中庶의 움직임은 英祖代에 이르러 通淸運動이라는 공개적 활동으로 바뀌고 있다. 通淸運動이란 자신들을 淸顯職에 나아갈 수 있게 해 주고 鄉案이나 鄉校의 序齒에서 행해져 온 그릇된 관행을 고쳐 달라는 탄원이었다. 純祖代에까지 이어지는 이들의 끊임없는 通淸運動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許通된 것은 극히 미미하였다. 그리하여 이들은 身分差別의 두터운 벽을 절감하면서 아예 현실을 외면하여 내면으로 침잠하거나 아니면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울분과 비판을 해학과 조롱이 담긴 문학으로 형상화하게 된 것이다.

앞에서 말한 신분체제의 동요를 小品體 散文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때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冒稱幼學 · 僞譜 · 買鄉 등으로 어렵게 획득한 兩班身分을 유지하기 위해 文學的 素養을 필요로 했던 집단과 여전히 兩班이면서 어느 정도의 文學的 素養도 지니고 있지만 경제적 궁핍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선 급선무였던 몰락 양반이 혼재하는 兩班戶의 동향이다. 또 다른 하나는 譯官이나 醫官, 庶孽처럼 경제적인 능력이나 전문지식, 문학적 재주 등을 골고루 갖추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데도 신분적인 제약 때문에 뜻을 펴지 못하는 中庶人의 울분과 좌절이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冒稱幼學 · 僞譜 · 買鄉 등으로 兩班 행세를 하게 된 常民들은 자신들이 획득한 신분을 보다 확실한 방법으로 보증받는 작업에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이들은 과거에 응시하여 합격함으로써 어

12) 鄭奭鍾; 朝鮮後期 社會勢力의 動向과 政變—肅宗年間の 甲戌換局과 中人 · 商人 · 武人의 政變參與를 中心으로, 韓國史學 5,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3.

렵게 획득한 兩班身分을 불변의 것으로 하려고 혈안이 되기도 하였다.

戶籍法이 不明해지고 국가의 紀綱이 해이해진 뒤로 발갈고 농사짓던 자나 다른 사람의 노비로서 免賤이 된 部類 중에서 衣食이 약간 있는 자들은 모두 幼學이거 칭하면서 합부로 과거에 응시합니다. 그 가운데 돈이 많은 자는 한 몸으로 3, 4명으로 分作하여 文筆에 능한 자로 하여금 각처로 나누어 가게 하는데 本道 他道를 가리지 않습니다.<sup>13)</sup>

자신이 직접 과거에 응시하거나 아니면 대리시험을 치게 하거나간에 어느 정도의 漢文解讀力과 文筆力이 요구되고, 兩班 행세를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의 書籍所藏이 불가피했을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양반층의 양적 확대는 결과적으로 漢文學 讀者層 내지 需要의 팽창을 가져오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兩班戶의 증가로 인해 과거응시자가 격증하면서 正祖年間에는 15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과거응시를 위해 서울로 몰려들었다고 한다.<sup>14)</sup> 하지만 19세기 전반에 이르도록 가장 많은 급제자를 낸 것이 英祖年間의 연 평균 40인 정도에 불과했다 하니<sup>15)</sup> 응시자의 절대 다수는 낙방자가 될 수 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앞의 인용문에서와 같이 文筆에 능한 자로 하여금 대리시험을 치르게 하는 부정이 성행하게 된 것이다. 한 사람이 자신을 위해 ‘文筆에 능한 자’ 3, 4명으로 하여금 대리시험을 치르게 했다는 것을 보면 이 글이 쓰여진 正祖년간에 이미 ‘文筆’을 업으로 삼고 있던 자들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東廂記纂」 卷2의 〈金安國〉이란 작품에서 金淑이 壯元한 아들을 보고 대뜸 借作借筆한 것이 아니냐고 호령하는 것도 당시에 科擧의 부정행위가 비일비재하게 행해졌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이러한 문란한 과거제도의 모습은 많은 漢文短篇에도 잘 나타나 있다. 「靑丘野談」 卷2의 〈騙鄉儒生朴生登科〉와 卷6의 〈窮儒說計得科宦〉은 작품 전편이 科場에서의 속임수를 소재로 하고 있으며, 卷3의 〈聞科聲夢蝶可徵〉에서는 시골의 무식한 校生이 李進士의 남의 글을 적당히 잘라 붙이고 이를 베껴 낸

13) 「日省錄」 572. 正祖 21年 丁巳 10月 12日 丁未 執義申禹相從縣疏陳病狀乞遞仍陳賑政科, ‘自籍法不明國綱弛之後 鋤鉏棘矜之子 人奴免賤之類 稍有衣食者 皆稱幼學 濫赴場屋 其中多錢之漢 則以一人之身 分作三四名 使能文筆者 分往各處 無論本道他道’

14) 鄭奭鍾; 洪景來亂의 성격, 韓國史研究 7, 1972.

15) 한국역사연구회 19세기정치사연구반; 조선정치사 上, 청년사, 1990, p. 142.

덕택으로 과거에 급제한 내용을 그리고 있다. 이와는 약간 성격이 다르기는 하지만 「靑丘野談」 卷6의 〈宋班窮途遇舊僕〉은 몰락한 양반집의 종이 도망친 후에 양반 행세를 하고 과거에 급제하여 承旨에까지 오른 이야기이고, 「東稗洛誦」 卷下의 金生 이야기는 借筆借作으로 출세한 인물을 그린 것이다. 李鉉의 漢文短篇인 「柳光億傳」은 돈 액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 科詩의 높낮이를 매겨 팔아먹는 것으로 생업을 삼았던 柳光億을 주인공으로 한 작품인데, 이 글 안에 ‘鄉之俗 多以賣擧子業爲生者’라는 구절이 있다. 이는 당시에 글짓는 것을 생업으로 삼는 이가 상당수가 달했음을 알려주는 좋은 예이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볼 때, 科擧에 낙방한 일부 선비들에 의해 玩世譏弄의 戲文이 지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다.

富實한 常民戶가 재력을 바탕으로 兩班戶로의 상승을 도모하는 현상과는 반대로 몰락하는 양반의 수도 상당하였다. 몰락한 이들 양반은 생계를 위해 이때까지 기피하던 農・工・商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타항에 가서 良人이 고용살이를 하기도 하였다.<sup>16)</sup> 朴趾源의 「兩班傳」에 나오는 旌善兩班은 이와 같은 몰락양반을 형상화한 것이다. 이와는 달리 農・工・商에 참여할 수 없었던 일부 몰락양반들은 위에서 말한 것처럼 글짓는 것을 생업으로 삼기도 하였다.

○ 전일 서울 시내의 소위 貰冊집이라 하는 것은 그리하여 발달된 것이 아닌가 한다. 즉 가난한 선비가 小說冊을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또 그것을 세놓는 한편, 타인의 저작물까지도 또한 筆寫하여서 같이 貰를 놓아서 그것으로 糊口策으로 삼았으리라는 것이다.<sup>17)</sup>

○ 이들 寫本筆寫는 勿論 創作도 南北村의 貧寒한 兩班의 後裔나 胥吏들의 손으로 이루어진 것이니, 여기에 이러한 創作이나 書寫에 대한 報酬가 나가고 다시 貰冊을 놓는 집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다.<sup>18)</sup>

이는 주로 朝鮮後期 小說의 발달과 관련된 논술이지만, 조운제가 지적한 ‘타인의 저작물’이 반드시 소설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糊口를 위해서 당시의 독서풍토를 고려해야 했을 터인데, 당대의 習俗이 經學을 버

16) 鄭奭鍾: 앞의 책, 같은 곳.

17) 趙潤濟: 韓國文學史, 東國文化社, 1963, p. 307.

18) 金東旭: 한글소설 坊刻本の 심립에 대하여, 郷土서울 8, 1960년 7월, pp. 40~44.

리고 小品集과 雜書에 쏠리는 상황이었으므로<sup>19)</sup> 자연히 小品體의 글을 짓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正祖는 小品異書로 쏠리는 당시의 독서풍토를 唐學의 일종이라 하여 그 폐단을 지적하였다. 唐學에 빠진 이들은 明清間의 小品異書를 많이 지니기도 하고 오로지 西洋曆數의 학문을 숭상하기도 하며 衣食器皿에 燕市의 물건 쓰기를 좋아하기도 하는데 그 폐단은 마찬가지라는 것이었다.<sup>20)</sup>

正祖는 이러한 판단에 따라 燕行 使臣을 수행했던 譯官을 중심으로 행해졌던 書籍輸入을 금지시키는 조치를 내렸다. 그 당시 燕行使臣들을 수행했던 譯官들은 조정의 승인하에서 무역을 통해 致富를 할 수 있었는데 이들이 사오는 물품중에는 書籍이 상당량을 차지했다. 심지어 中國의 書店街에서 우리나라의 사신을 고대할 정도였다.<sup>21)</sup> 서집가에서 책을 쌓아 놓고 고대하는 정도로 상당한 규모의 서적이 사신들을 통해 국내로 유입되고 있었던 것이다.

「里鄉見聞錄」에 나오는 曹生이란 인물은 책장수였는데 그는 日出부터 시작해서 시장으로, 골목으로, 관청으로 뛰어다니며 위로 搢紳大夫로부터 밑으로 小學童子에 이르기까지 만나지 않는 사람이 없었으며 소매에 책을 가득 안고 다녔다.<sup>22)</sup> 이 기록에 의하면 英祖 47년에 「明紀輯略」 가운데 太祖와 仁祖를 모독한 문구가 들어 있어 중국에 그 시정을 요청하는 한편, 그 책을 천하에서 수집하여 소각하고 책을 팔았던 자들을 잡아죽인 일이 있었다. 당시에 국중의 책장수들이 거의 죽음을 당하였으나 조생은 미리 달아나 있어서 홀로 죽음을 면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sup>23)</sup> 이 사건은 당시에 譯官들이 사온 책들이 책장수들에게 넘겨져 판매되고 있었음을 알려주는 예이다. 그리고 이 기록을

19) 正宗大王實錄 15年 辛亥 11月 戊寅條, 卷33 面56, ‘近來習俗 皆未免捨經學而趨雜書’, 同 21年 丁巳 11月 癸酉條, 卷47 面42, ‘近日士趨之不正 多由於小品之書’, 同年 同月 乙酉條, 卷47 面44, ‘近來文體 耽看小說 務爲奇幻’

20) 「弘齋全書」日得錄 訓語條, 卷176 面34, ‘唐學有三種 有多藝明清間小品異書者 有專向西洋曆數之學者 有衣食器皿之喜用燕市之物者 其弊則一也’

21) 「承政院日記」第1695冊, 正祖15年 辛亥 10月望後 ‘且伏聞燕肆儲書 以待朝鮮使行云’

22) 劉在建; 「里鄉見聞錄」卷10〈曹生〉, ‘生日出 而走於市 走於巷 走於庠塾 走於官府 上自搢紳大夫 下至小學童子 無不走見之 而其走如飛 其懷袖充然者 書也’

23) 앞과 같은 곳, ‘英宗辛卯 以朱璘所著明紀輯略 有汚讟我太祖仁祖之語 控于上國 大寇天下 火其書 戮賣書者 於是 國中鬻書者 舉就誅 而生先是走遠方 以故 獨免焉’

통해 淸生처럼 책판매만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들이 많았을 정도로 書籍 購賣層이 상당히 두텁게 형성되어 있었음도 알 수 있다.

그런데 譯官을 통해 수입되는 책은 대체로 明末淸初의 小品文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尹持忠의 神主燒毀사건을 논의하는 가운데 李秀輔가 ‘매양 중국시장에서 購賣하는 자들은 반드시 新出奇僻한 책만을 구하므로 그 폐단이 西洋書가 害를 끼칠 수 있는 지경까지 된 것입니다’<sup>24)</sup>라고 進言하고 있는데 그가 말한 新出奇僻한 책이란 바로 小品文을 말하는 것이다. 「熱河日記」의 기록은 이러한 사실을 보다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燕巖은 燕行 도중에 만난 淸人 富圖三格으로부터 입수한 鳴盛堂 發行의 群書目錄을 보고 淸人의 小品 이라며 그 내용을 기록하였다.<sup>25)</sup>

燕巖이 「熱河日記」에 기록해 둔 書籍들은 모두 明末淸初의 小品集인데, 그는 이 目錄을 보자 이내 淸人의 小品이라고 하였다. 이는 아마도 그가 燕行 이전에 이들 小品을 많이 접하였었고, 또한 어떠한 것을 小品이라고 하는지에 대해서도 대강은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당시에 우리나라 燕行使臣들이 가장 많이 찾던 鳴盛堂<sup>26)</sup>에서 이러한 目錄을 돌려가면서 판매하고 있을 정도였으니 이들 책이 燕行使臣들을 통해 얼마나 많이 국내에 유입되고 널리 유포되었는가를 하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당대의 독서경향이 明末淸初의 小品쪽으로 쏠리는 상황이었으므로 글짓는 것을 생업으로 삼았던 사람들로서는 이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며, 이들의 作風 또한 당시의 문단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正祖가 ‘근래에 新進入의 文體를 보니 纖靡하고 浮薄함이 심하며 오로지 淸淸問의 괴이한 文套만을 숭상한다’<sup>27)</sup>고 한 것이나 ‘明末의 문장에 이르러서는 嚙殺하고 促急하며 傾巧하고 破碎하여 차마 바로 볼 수가 없다. 이는

24) 「承政院日記」第1695册 正祖15年 辛亥 10月望後, ‘秀輔曰 我國書籍 不患不足而每每購賣於燕市者 必求其新出奇僻之書 故其弊至於西洋書之爲害矣’

25) 「燕巖集」卷11 面25 〈渡江錄〉7月 3日條, ‘所錄書目 盡是淸人小品七十餘種’

26) 「燕巖集」卷15 黃圖紀略 〈琉璃廠〉條에서는 ‘鳴盛堂 天下舉人海內知名之士 多寓是中’이라 하여 鳴盛堂이 당시 중국 知識인들이 많이 드나들던 곳을 밝히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사신들도 이곳을 많이 찾게 되었다.

27) 「弘齋全書」日得錄 卷162 面22 庚戌條, ‘近見新進人文體 甚纖靡浮薄 專尙淸淸問怪套’

오로지 시대의 風氣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sup>28)</sup>라고 한 것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하지만 대표적인 小品體 文章家인 燕巖이 자신의 글이 委巷人들에게 기리는 바 되었다고 말했던 바와 같이<sup>29)</sup> 小品體 散文은 무엇보다도 中人文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끈질긴 通淸運動이 현실적으로 벽에 부딪치게 되면서 점증되어 온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비탄과 분노를 문학으로 표현하게 되었던 것이다. '윗쪽에서는 그들이 더불어 주지 않고 아래 쪽에서는 자신들이 함께 하려 하지 않아 마치 돌아갈 곳 없는 窮人처럼 그 사이에 웅크리고 있는'<sup>30)</sup> 그들의 문학이 悲嘆과 憤怒, 嘲弄과 諷刺의 분위기를 띠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文體反正 당시의 委巷詩社인 玉溪詩社 同人이었던 車佐一 같은 이는 '영영세세토록 이 나라 사람이 되지 않겠다'고<sup>31)</sup> 절규하면서, '磊落·輪囷·幽憂·佗傺 등의 일체의 감정을 모두 시에 부쳤다'고<sup>32)</sup> 한다.

이미 무시 못할 사회세력으로 성장한 中人の 이와 같은 불만을 제어해야 했던 正祖는 이들이 兩班도 아니고 常人도 아니어서 그 사이에居하여 가장 교화하기 어려운 존재라고 하면서도<sup>33)</sup> 이와 같은 처지 때문에 이들이 裨官雜記에 빠져들고 明清의 小品에 경도되고 있다고 동정을 표하고 있다.

이른바 中人이라는 자들은 나아가 士夫가 되지 못하고 물러나 常賤도 될 수 없어 스스로 落拓했다고 생각하여 실질적인 곳에 뜻이 없다. 간혹 조금 才藝있는 자가 있어도 기량이 부리는 바를 감당하지 못하여 문득 망상을 일으키고 오로지 좋고 신기로운 것을 숭상하여 더불어 학습하게 되는 자도 經學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다... 다만 明清의 詭怪한 文體가 있는 것만 알

28) 앞의 책 卷164 面12, '至於明末之文 噍殺促急傾巧破碎 不忍正視 此專由於時勢風氣之使然'

29) 朴趾源:「燕巖集」卷2 面11, '轉輾爲委巷所慕 則不期然而然'

30) 正宗大王實錄 卷13, 正祖6년 壬寅 6月 乙亥條, '上方則彼不與 下方則此不肯 棲屑兩間 若窮人無歸'

31) 「四名子詩集」附錄 行狀 '世世永永 不願爲本邦人也'

32) 앞과 같은 矣. '凡一切胸中 磊落輪囷 幽憂佗傺之思 并寓之于詩'

33) 正宗大王實錄 卷33, 正祖15년 辛亥 11月 壬午條, '教曰 中人輩 非兩班非常人 居於兩間 最是難化之物'

뿐이라 稗官雜記에 이르러서도 힘쓰지 않음이 없다.<sup>34)</sup>

이들은 才藝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제대로 펼 수 없는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불만 때문에 高文大冊을 외면하고 小品體 散文에 경도되었다는 것이다.

통치자의 입장에서 볼 때 체제 안정에 위해가 되는 것은 끈질기게 通濟를 주장하던 中庶 뿐만이 아니고 당쟁 등으로 오랫동안 정권에서 소외되고 몰락한 양반도 마찬가지였다. 이들의 불만은 무식한 일반대중과는 달리 문장을 통해서 표현되고 과급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다음과 같은 正祖의 발언은 그러한 자신의 의중을 드러낸 것이다.

○ 자질구레하고 尖斜한 것은 어지러운 세상의 煩促한 소리요, 幽險하고 奇巧로운 것은 孤臣孽子の 문장이다.<sup>35)</sup>

○ 稗官小品의 책은 가장 사람의 마음을 해치는 것이다. 선비로서 文章과 經術에 뜻이 있는 자라면 비록 상을 준다고 하여도 보아서는 안되는데, 하물며 嚙殺하고 尖薄하여 孤臣孽子の 비탄해하고 괴로와하며 근심으로 가득한 소리임에라.<sup>36)</sup>

小品을 幽險하고 新奇와 巧妙에 힘쓰는 것으로 보는 것은 小品體 散文을 비판하던 당대 문인들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하지만 小品이 嚙殺하고 尖薄하게 된 이유를 孤臣孽子들의 신세한탄과 불만의 표출로 돌린 것은 正祖 자신이 이들 불만세력을 제어하고 회유해야 할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다. 正祖는 李家煥의 문장이 오로지 稗官小品을 숭상하므로 그를 文華라고 칭찬은 불가하다고 論斥한 李東稷의 상소에 대해, 그의 집안은 손꼽을 만한 家門인데도 백여년간 낙척하였으므로 지은 詩文들이 비탄과 강개의 분위기를 띠게 되었다고 하였다. 屈原이 離騷와 九歌를 지어 자신의 신세를 탄식하고 하소연한 것처럼 李家煥도 그렇게 한 것이므로 이는 결국 朝廷이 그렇게 만든 것이라는

34) 正宗大王實錄 卷51, 正祖23년 己未 5月 壬戌條, '所謂中人之名 進不得爲士夫 退不得爲常賤 自分落拓 無意於實地 間或有薄有才藝之人 不堪伎倆之所使 輒生妄想 專尚好新 所興學習者 非從事於經學之人也... 只知有明清詭怪之體 以至稗官雜記 無下矻矻孜孜'

35) 「弘齋全書」日得錄 文學條, 卷163 面2, '瑣碎尖斜者 亂世煩促之聲也 幽險奇巧者 孤臣孽子之文也'

36) 「弘齋全書」日得錄 文學條, 卷163 面5-6 壬子, '稗官小品之書 最害人心術 士之有志於文章經術者 雖賞之不觀 況其嚙殺尖薄 孤臣孽子悲苦愁悵之聲'

논조로 李家煥의 입장에 동정을 표한 것이다.<sup>37)</sup> 이는 李東稷의 상소가 당시의 현안이었던 文體反正에 편승해서 反對 黨色을 제거하려는 黨略에서 나온 것임을 正祖가 간파했기 때문이다. 그렇기는 하지만 이러한 正祖의 발언을 통해 낙착한 양반이나 서얼 등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文人群이 형성되고 있었던 당시 문단의 추이를 살펴볼 수 있다.

### III. 學風과 世界觀의 多元化 現象

신분체제의 동요는 다시 性理學의 퇴조와 實學 및 西學의 확산으로 특징 지워지는 지배이념의 통제력 약화를 불러일으켰다. 신분체제의 동요가 世界觀의 변화를 가져온 것인지, 아니면 西學의 평등사상과 같은 새로운 世界觀이 신분체제의 동요를 야기했는지는 명확하게 밝힐 수는 없지만 봉건적 신분체제의 동요와 世界觀의 변화가 맞물려 있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性理學은 처음부터 南宋의 王權 강화를 의도하고 있었는데 建國初期의 권력투쟁의 와중에서 조선조의 정치이념으로 채택되면서 한층 더 계급질서를 강조하는 성격으로 굳어졌다.<sup>38)</sup> 따라서 신분체제가 붕괴되면서 性理學이 퇴조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壬丙 兩亂을 겪으면서 민중들의 自我覺醒이 이루어짐으로써 性理學의 퇴조현상이 더욱 가속되었다. 이는 朝鮮後期 社會가 思想的으로 多元化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思想의 多元化 現象을 촉발시킨 요소들은 實學과 陽明學, 그리고 西學으로 요약된다. '實學'이라는 용어는 보편적으로 어느 시대에서나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성격과 개념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하지만 '實學'이라는 用語의 語源이나 의미가 어떠한 英正시대 이래의 新學風은 그 당시의 비현실적인 학문을 바로잡아 현실성을 다시 찾고, 우리나라의 실지 사정에 입각한 실제적인 사고를 세워놓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후세 사람들은

37) 正宗大王實錄 卷36, 面25 16年 壬子 11月 辛丑條, \*批曰 …彼家煥 未嘗非好家數而落拓百年 鄆輪而貫珠 自分爲羈旅草莽 發之爲聲者 悲咤愴慨之辭也 求而會意者 齊諧索隱之徒也…離騷九歌 假以自鳴 豈家煥之樂爲 伊朝廷之使然'

38) 金漢植: 實學의 政治思想, 一志社, 1979, p. 30.

물론 이 학풍의 개창자들 역시 스스로의 학문을 진정한 의미의 實學으로 인식하였다. 다시 말해 實學은 英正이래의 새로운 학풍으로서 현상적으로 존재했던 것이다.<sup>39)</sup>

實學의 형성에 영향을 준 요소로는 陽明學과 西學, 그리고 考證學을 들 수 있다. 性理學者들은 陽明學을 배척하는 입장에서 아예 관심조차 갖지 않은 데 비해 實學派들은 긍정적이든 비판적이든 이에 대해 비교적 깊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었다. 陽明學이 언제 朝鮮에 전래되었는가는 분명하지 않지만 대략 中宗 中 · 末期쯤으로 추측되며, 18세기초에 이르러서는 霞谷學이 성립되었다. 하지만 陽明學은 그 수용단계에서부터 배척의 대상이었으므로 조선조의 사상적 흐름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으며 주로 實學者들에게 한정적으로 수용되었다.<sup>40)</sup>

實學이 陽明學의 영향에서 발전하였다는 가정은 성립하기 어렵지만 實學者들이 陽明學을 보다 개방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여기에 다 지식과 행동의 괴리에서 오는 朱子學的 矛盾을 극복하려는 陽明學의 知行合一論은 實學派의 實踐精神을 고무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實學派는 陽明學에서 哲學的 根據를 발견하기 보다는, 道學派의 절대적 권위를 상대화시키는 수단적 역할에 접근하였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西學의 경우는 주로 科學 技術과 관련하여 實學者들의 관심을 끌었다고 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일부 학자들은 저절로 西學의 근본입장에 대한 인식과 수용에로의 급속한 진전을 계속하게 되었다.

實學派와 考證學의 관계도 중요한 측면을 이룬다. 비록 제한된 영향을 주긴 하였지만 考證學의 객관적이고도 실증적인 연구태도는 實學派에게 경전에 대한 義理論的 · 性理學的 해석을 벗어난 새로운 이해의 길을 열어주었다. 또한 우리 자신의 역사와 지리나 문헌에 대해 보다 객관적으로 접근하려는 의욕을 자극하여 그 결과 국학 연구의 업적을 가능하게 하기도 하였다.<sup>41)</sup> 實學의 考證學的 側面과 西學의 科學的 思考가 접목되면서 주체적 삶을 강조한 朝鮮後期 小品體 散文의 사상적 바탕이 마련된 것이다. 이러한 까닭으로 正祖는

39) 李佑成; 實學研究序說, 文化批評7·8, 1970년 가을.

40) 尹南漢; 朝鮮時代의 陽明學 研究, 集文堂, 1982, pp. 356~367.

41) 琴章泰; 韓國實學思想研究, 集文堂, 1987, pp. 17~19.

‘文體가 날로 비루해져서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것은 考證學에서 말미암은 것’<sup>42)</sup>이라 하면서 文體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名物考證을 담고 있는 小品體 散文을 없애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이른바 小品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文墨筆硯間의 일에 불과한 것이지만 나이가 어리고 見識이 천박하면서 才藝가 있는 자들이 日常의 인 것은 싫증내고 새로운 것만을 좋아하여 다투어 모방하면서 이에 빠져든다. 이는 마치 음탕한 소리와 사특한 낯빛이 마음을 좀먹어 들어가면 聖人을 비난하고 경전을 반대하며 윤리를 멸시하고 의리에서 어그러지게 된 다음에야 그 폐단이 그치는 것과 같다. 하물며 小品의 일종은 곧 名物考證의 학문이라, 한 번 옮겨지면 邪學에 빠져들게 되므로 내가 ‘邪學을 떨쳐내고자 하면 마땅히 먼저 소품을 떨쳐내버려야 한다’고 한 것이다.<sup>43)</sup>

이 글의 문면만으로 볼 때 正祖의 우려는 小品 자체나 그 文體가 아니고 小品에 담겨있는 내용에 대한 것이며 신기한 것만을 추구하는 풍조, 특히 小品의 名物考證的 측면에 대한 것이다. 才藝있는 자들이 그 才藝를 순화하고 제어할 수 있는 經學에는 힘쓰지 않고 오로지 새로운 것만을 모방하기에 급급하여 修身이나 治世와는 무관한, 잡다하고 자질구레한 일과 물건의 考證에 빠져드는데 이 名物考證은 西學으로 轉移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명나라 이후로 經學과 文章이 각기 門戶를 달리하였고 또 考異의 학문이 있어 역지로 名目을 만들어 神奇한 것에 힘썼다. 學術의 어그러짐과 인심의 잘못됨은 오로지 이에서 말미암은 것이었으며 심지어 小品으로 流變하였다가 異學으로 돌아가기도 한다. 이름이 異學이라면 어찌 크게 우려할 것이 아니겠느냐?<sup>44)</sup>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實學’이란 英正 당시의 新學風에 대해 후대에 명

42) 「弘齋全書」日得錄 文學條 卷163 面19-20, ‘目今文體之日卑 至於莫可收拾者 即考訂之學 有以啓之’

43) 「弘齋全書」日得錄 文學條 卷 164 面22, ‘予嘗言小品之害 甚於邪學 人未知其信然乃有向日事矣 蓋邪學之可關可誅 人皆易見 而所謂小品 初不過文墨筆硯間事 年少識淺薄 有才藝者 厭常喜新 爭相模倣 駸駸然 如淫聲邪色之蠱入心術 其弊至於非聖反經 蔑倫悖義而後已 況小品一種即名物考證之學 一轉而入於邪學 予故曰 欲祛邪學 宜先祛小品’

44) 「承政院日記」第1783冊, 正祖 21年 丁巳 11月 8日, ‘自明以後 則經學文章 別立門戶 而又有考異之學 強作名目 務爲神奇 學術之差 人心之誤 職此之由 甚至於小品之流 歸於異學 名爲異學 則豈非大可憂慮者乎’

명한 것이므로 正祖나 小品體 散文에 비판적인 여타 문인들이 ‘實學’이라는 개념의 틀안에서 당시의 新學風을 이해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들 역시 程朱學과는 다른 새로운 學風이 조성되고 있었던 현실은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 새로운 학풍의 특징 가운데 하나를 名物考證으로 이해한 듯하다. 이는 小品體 散文을 주도한 北學派의 저술들이 주로 어떠한 사실이나 인물, 또는 사물을 제목으로 내세우고 이에 대한 考證이나 느낌, 의견 등을 짚막하게 기술하는 방식을 택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소재상으로도 北學派들의 관심이 주로 실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衣食器皿에 집중되고 있었으므로 道學派 문인들에게는 이들이 다만 자질구래한 것에 관심을 갖고 새로운 것만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였던 것이다. 특히 朴齊家의 「北學議」의 경우 기와나 벽돌은 물론 도로나 교량, 그리고 소, 말, 나귀, 안장, 구유, 심지어 간장이나 종이에 이르기까지 그가 燕行을 통해 보고 느낀 것들을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그는 뒤떨어진 우리의 제도와 문물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排淸崇明의 고루한 名分論에서 벗어나 淸의 앞선 문명을 배워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또 〈丙午所懷〉에서 西洋사람들이 모두 幾何學에 밝고 利用厚生의 방법에 밝다 하여 국가에서 그 사람들을 초빙하여 中國의 자제들로 하여금 그들에게서 과학문명을 배우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sup>45)</sup> 朴齊家가 이와같이 과감하게 ‘西土招聘策’을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은 17세기 이후 漢譯西學書들이 널리 유포되기 시작하여 寫本은 물론 한글로 번역되어 유포되기도 할 정도로 西學에 대한 관심이 지식인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이들의 관심은 주로 문명의 이기에 대한 것이어서 ‘西土招聘策’을 주장한 朴齊家조차도 같은 글에서 ‘篤信堂獄 與佛無間’이라고 할 정도로 天主教 그 자체에 대해서는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본래 西學이란 용어가 사용된 것은 明末淸初의 일인데 憑承鈞은 Aloys Pfister의 「入華耶蘇會士列傳」을 중국어로 번역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明나라 萬曆으로부터 淸나라 建隆까지 200년간은 옛 耶蘇會士들이 중국에서 활동한 시기가 되는 바, 그들은 종교를 전하고 포교하는 일 이외에도 中國과 西洋의 학설을 경통하여 무려 數百種의 책을 擇譯하였다. 耶蘇會士로 그

45) 朴齊家; 〈丙午所懷〉, 「貞菴閣全集」下, 驪江出版社 影印本, p. 509 내용요약.

일에 관계되는 자가 500명에 가깝다.<sup>46)</sup>

憑承鈞이 말하고 있는 명나라 萬曆으로부터 淸나라 建隆까지 200년간이란 곧 明末淸初이니 바로 이 시기에 수 많은 西學書들이 중국에서 번역되고 널리 유포되었던 것이다. 그 가운데는 正祖年間に 크게 물의를 빚은 「天主實義」와 「七克」도 포함되어 있다.

正祖는 「天主實義」나 「七克」과 같은 西學書를 淸小品과 비슷한 것으로 보았다. 그가 北學派를 거창하여 ‘唐學에 세가지가 있으니 淸淸間의 小品異書를 많이 가지고 있는 자가 오로지 西洋曆數의 학문을 숭상하는 자가 있고 衣食器皿에 燕市의 물건 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폐단은 한가지이다’<sup>47)</sup>라 한 것은 주로 중국을 통해서 유입되고 있었던 새로운 學風과 思想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낸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學風과 思想, 그리고 이들 新思潮의 媒介體라고 인식되고 있었던 小品體 散文에 대한 정치적 반응이 바로 文體反正이다.

文體反正은 당시 文壇에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지만 그 실제적인 조치는 李鈺이 停學당하고 몇몇 사람들이 自訟文을 쓴 것과 中國書籍의 輸入을 禁止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自訟文을 쓴 사람들의 경우, 이들은 일회적인 견책을 받았을 뿐 文衡 등의 중책을 맡게 된다. 그렇다면 결국 文體反正의 실제적인 조치는 ‘한갓 儒生에 불과한’ 李鈺이 停學당한 것과 淸文集의 수입을 금지한 것이었던 셈이다.

淸文集의 수입금지가 실질적으로 시작된 것은 正祖 15년 10월의 일이다. 이에 앞서 正祖 11년 10월 備邊司에서 ‘使行賚去事目’을 올려, 左道不經異端 妖誕之說 및 雜術方書와 관련된 書籍은 一切 엄히 막도록 하되 譯官이나 三使臣에 딸린 사람을 막론하고 만약에 몰래 사가지고 오는 일이 있으면 그곳에서 적발 즉시 소각하고 범한 것을 狀啓로 아뢰도록 하며, 重辟에 처하되

46) 費賴之著 憑承鈞 譯：「入華耶穌會士列傳」序，臺北 商務印書館，1938. 李元淳；朝鮮西學史研究，一志社，1986, p. 9에서 재인용.

47) 「弘齋全書」日得錄 訓語條，卷176 面34, ‘唐學有三種 有多蓄淸淸間小品異書者 有專尙西洋曆數之學者 有衣食器皿之喜用燕市之物者 其弊則一也’

使臣은 엄히 묶고 書狀官은 즉시 그 지방에 灣府에 定配하도록 해야 한다<sup>48)</sup>고 하였다. 조정에서 書籍搬入을 금지하는 措置를 취한 실질적인 이유가 사상적인 통제쪽에 비중이 두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正祖는 집집마다 차고 넘치는 것이 중국책 아닌 것이 없어서 이미 나온 책만으로도 충분하니 무엇 때문에 많이 살 필요가 있느냐며 다소 완곡하게 말하고 있다. 그리고는 이른바 明末清初의 문집과 稗官雜說은 더욱 世道에 해로운 것으로 근래에 文體가 浮輕嘵殺하여 館閣文에 뛰어난 자가 없는 것도 모두 雜冊이 많이 나온 데서 비롯된 것이라 하였다. 그러나 비록 법을 만들면서까지 금하게 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使臣 스스로가 너무 지나친 것을 막을 수 있다면 蕩然한 것보다 나은 것이라 하였다.<sup>49)</sup> 正學을 밝히고 권면함으로써 邪學을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中國書籍의 搬入問題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보이던 正祖가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서게 된 것은 同王 15년 10월에 全羅道 珍山の 士族인 尹持忠이 작고한 모친 權氏의 제사를 폐하고 神主를 부순 사건 때문이다. 尹持忠은 결국 外從兄 權尙然과 함께 11월에 斬首刑을 당하게 되지만, 이 사건이 朝野에 준 충격은 엄청난 것이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洪樂安, 李基慶, 陸萬中 등을 중심으로 한 攻西派가 결집되었으며, 특히 洪樂安은 珍山郡守 申史源과 左議政 蔡濟恭에게 長書를 보내어 尹持忠을 주살하라고 요청하였다. 이어서 館學 儒生 宋道鼎이 상소를 올려 李承薰이 중국에서 西學書를 구입해 온 사실을 거론하면서 이러한 때문으로 尹持忠事件과 같은 일이 벌어지니 엄중히 조치할 것을 진언하였다. 이러한 와중에서 尹持忠과 權尙然 兩人을 심문한 全羅道 觀察使 鄭民始는 狀啓를 올려 ‘이들은 다만 天主가 있는 줄만 알지 君親이 있는 것을 모르며’ ‘심지어 君上和 父母의 명은 어길 수 있으나 天主의 가르침은 극형을 당하더라도 어길 수 없다고 말한다’고 보고하였다.<sup>50)</sup> 이렇게

48) 正宗大王實錄 卷24 面33-34 正祖 11年 丁未 10月 甲辰條, ‘凡係書籍涉於左道不經異端妖誕之說及雜術方書一切嚴防毋論譯官及三使臣所屬如有潛質之事即其地摘發燒火狀聞犯者置之重辟使臣嚴繩書狀官即其地方灣府定配’

49) 앞과 같은 곳, ‘至於書冊則我國人家溢宇充棟者無非唐本雖於已出本耽看足爲該洽人亦足爲文章士更安用多購乎最所切可惡者所謂明末清初文集及稗官雜說尤有害於世道觀於近來文體浮輕嘵殺無館閣大手筆者皆由於雜冊之多出來雖不必設法禁防爲使臣者若能禁其已甚猶賢於蕩然’

50) 正宗大王實錄 卷33 面56, ‘只知有天主不知有君親…至以謂君上之命可違父母之命可違天主之教雖被極律決不可變改云’

西學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正祖는 ‘西學을 금하고자 하면 먼저 稗官雜記를 금해야 하며 稗官雜記를 금하고자 하면 먼저 明末清初文集부터 금해야 한다’며<sup>51)</sup> 明末清初 文集의 搬入을 철저히 규제하는 동시에 史館과 弘文館에 소장된 西學書를 불사르게 하였다.<sup>52)</sup> 결국 尹持忠事件이 天主教에 대한 탄압과 明末清初 文集에 대한 극단적인 배격을 초래한 것이다. 그리고 明末清初 文集에서 유래된다고 인식되고 있었던 小品體 散文에 대한 비판도 이때부터 본격화되었다.

尹持忠事件으로 인해 稗官小品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어 있는 상태에서 正祖의 스승이었던 南有容의 아들 南公轍이 策問에 小品用語를 사용하고 李鉉이 試卷을 小品體로 쓴 것이 드러나면서 급기야 文體問題가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하게 되었다. 그 결과 李鉉은 停學를 당하고 南公轍·李相瓚·金祖淳 등은 견책을 당하였으며 朴趾源 또한 自訟文을 쓰도록 강요당하였다. 이러한 조치 이후에 小品體 散文은 얼마간 조정에서 거론되지 않고 있었는데 小品體 散文이 다시 問題된 것은 飛語獄辭事件 때문이다.

이 사건은 姜彝天이 앞으로 멀지않아 大變이 일어날 것이니 서로 締結하여 목숨을 보전해야 할 것이라는 요지의 流言蜚語를 퍼뜨린 데서 발단이 된 것이다. 사실은 당시 西學에 깊이 빠져 있던 金健淳이 자신이 周文謀와 만났던 일을 왜곡, 과장해서 姜彝天에게 전달함으로써 이런 사건을 야기시킨 것이다. 이 사건이 보고되자 正祖는 이번 일은 한 번 웃을 거리도 되지 못하는 일이나 이와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은 선비들이 小品에 빠져든 때문이라며 이를 문체 문제로 돌렸다. 근래의 문체는 小品에 탐닉하는 때문으로 典實함을 버리고 오직 奇幻하기에만 힘쓰니 이것이 변하여 邪學이 되고 또 다시 변하여 이와같은 일이 된 것이라는 것이었다.<sup>53)</sup> 특히 小品體 文章을 지었다 하여 성균관에서 특별조치까지 당한 姜彝天和 金鑣 등이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음으로 해서 조정에서는 小品體 散文과 西學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확신을

51) 正宗大王實錄 卷33, 正祖 15年 辛亥 10月 乙丑條, ‘欲禁西洋之學 先從稗官雜記 欲禁稗官雜記 先從明末清初文集禁之’

52) 이때 소장된 西學書는 모두 26種 48冊으로 「外奎章閣形止案」에 실려 있다. 李元淳의 앞의 책 p. 65 참조.

53) 「承政院日記」 正祖 21年 丁巳(1797) 11月 16日條, ‘上曰 近來文體 耽於小品捨却典實 惟務奇幻 故一變而爲邪學 又一變而爲今番事’

갓게 되었다. 또한 正祖는 姜彝天에 대해 평하기를 그는 輕佻無行한 무리이며 그 문체 또한 嚙殺浮輕하여 오로지 小品이라<sup>54)</sup> 하면서 이번 사건 또한 요즈음에 말하는 소품이 邪學에 流入되어 그리된 것이니 후진을 잘 선도해서 이를 蹈襲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명하였다.<sup>55)</sup>

保守의 文人들이 小品體 散文을 西學과 불가분의 것으로 인식하게 된 것은 이처럼 尹持忠事件이나 飛語獄辭事件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小品體 文章家들의 저술을 보면 西學과 小品體 散文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는 이러한 인식이 西學關聯 事件이나 막연한 추측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미 말한 것처럼 正祖로부터 그 文體가 전적으로 稗官小品에서 나왔다고 지목받은 朴齊家是<sup>56)</sup> ‘西士招聘策’을 주장하였다. 「熱河日記」의 〈鵠汀筆談〉에는 ‘耶蘇’와 ‘耶蘇之教’에 대한 筆談이 실려 있는데<sup>57)</sup> 燕巖의 의도가 어떠한 결과적으로 ‘耶蘇’와 ‘耶蘇之教’를 구체적으로 소개한 셈이 되었다. 이어서 〈風琴〉과 〈洋書〉<sup>58)</sup>에서도 北京의 天主堂과 관련된 몇몇가지 사실들을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또한 〈利瑪竇塚〉<sup>59)</sup>에서는 利瑪竇의 무덤을 비롯한 서양 선교사들의 무덤과 利瑪竇의 墓碑銘을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朴趾源의 논술은 단순히 天主堂 안의 風琴과 洋書, 그리고 利瑪竇의 무덤을 설명하고 묘사한 것이기는 하지만 西學과 西洋人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족한 것이었다. 더구나 李德懋가 그의 편지에서 “世儒로서 遊歷에 뜻을 두는 자는 매양 西洋의 李瑪竇가 국내외를 널리 유력하던 일을 말하게 되는 동시에 그를 장하게 여겨 ‘남아는 마땅히 이와 같아야 한다’고 말한다”<sup>60)</sup>고 한 바와 같이 당시의 지식인들은 西學에 대한 호기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약간의 동경심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天主

54) 「承政院日記」 正祖 21년 丁巳 11月 11日條, ‘蓋所謂姜哥 曾所累見 不過一輕佻無行之輩 薄有才藝 時參泮時 而見其文體 嚙殺浮輕 專是小品’

55) 「承政院日記」 正祖 21년 丁巳(1797) 11月 14日條, ‘上曰 此由於近日所謂小品者 流入於邪學而然矣 卿須訓導後進 切勿蹈襲之地 可也’

56) 「弘齋全書」 卷165 面10, 日得錄 文學條 丁巳, ‘李德懋朴齊家輩文體 全出於稗官小品’

57) 「燕巖集」 卷14 面9-10.

58) 「燕巖集」 卷15 面9-11 黃圃紀略

59) 「燕巖集」 卷15 面33-34 蟲葉記

60) 「靑莊館全集」 卷16 雅亭遺稿8 書2 〈尹曾若 可基〉, ‘世儒之志 夫遊歷者 每談大西洋利瑪竇 博遊乎方之內外 未嘗不振腕壯之曰 大男兒當如此’

堂과 洋書에 대한 기록은 李德懋의 「入燕記」에도 실려 있는데<sup>61)</sup> 「熱河日記」와 「入燕記」의 西學關聯 기록은 단순한 見聞의 기록에 불과하긴 하지만 이와같은 天主教 關聯조목들이 아무런 비판없이 이들 遊記에 실려 있을 수 있었던 것 자체가 小品體 散文과 당시 지식인들의 개방적 사유구조의 상관관계를 알 수 있게 해 주는 것이다.

#### IV. 結 論

英正代에 小品體 散文家로 지목되었던 朴趾源·李德懋·朴齊家·李錡·金鑣 등은 모두가 몰락양반이거나 중인같은 소외계층의 문인들이다. 이들은 문학을 과거에 의한 출세의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므로 經學이나 道德과 같은 文學外的 제약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었다. 그러기에 이들은 ‘獨抒性靈’과 ‘不拘格套’를 표방했던 公安派의 문학에 쉽게 접목될 수 있었으며 그 영향 아래 뛰어난 抒情性和 斬新한 言語驅使를 통해 당대 문단에 새로운 기풍을 진작시켰다.

이러한 새로운 文風은 앞서 말한 몇몇 小品體 文章家들만에 국한되어 나타난 것은 아니었다. 委巷人을 포함하여 당시 新進輩들 대부분이 이 새로운 文風을 추종하여 일종의 時代的 風氣를 이루었던 것이다. 小品이란 용어의 사용이 英正年間に 한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도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본고에서는 소품체 산문이 영정년간 문단의 주된 흐름의 하나로 정착될 수 있었던 사회상을 제도사적 측면에서는 신분체제와 동요와 소외문인군의 형성에서, 그리고 정신사적 측면에서는 학풍과 세계관의 다원화 현상에서 살펴 보았다.

앞서의 논의를 요약해서 결론으로 삼으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英正年間は 신분체제의 동요가 두드러진 현상으로 나타났던 시기

61) 「靑莊館全集」卷67 入燕記 下 6月 14日條

이며, 그 변화는 兩班戶의 격증과 中人層의 세력화로 나타났다. 몇몇 구체적 사례들을 통해 살펴볼 수 있었던 바와 같이, 과거낙제생의 급증에 따른 결과로서 자연히 예비문인군이 많아지게 되고 결국 이들에 의해 玩世譏弄의 戲文이 지어지게 된 것이다. 그리고, 小品을 위주로 한 明清文集 등을 팔아 생계를 꾸려 나가던 책장수가 많았다는 사실을 통해 당시의 독서성향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 이러한 독서성향이 이들 예비문인군의 문풍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로, 小品을 위주로 한 明清의 문집들이 대량으로 유입되면서 과거를 통한 출세에는 관심이 없으면서도 문장력을 갖춘 中庶人들이 자신들의 예술적 욕구를 발산하는 방법으로 小品體 散文의 撰作에 힘을 기울였고 이것이 다시 시대적 風氣를 이루게 되었다고 본다.

세째로, 신분체제의 동요에 따라 사상적 개방이 촉진되면서 實學과 西學이 점차 확산되어 나갔는데, 小品體 散文의 대두 또한 이와같은 세계관의 변화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특히 실학자들의 考證的 思考는 小品體 散文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으며, 이는 道學派 文人들에 의해 비난의 표적이 되었다.

네째로, 西學의 科學的 思考 역시 小品體 散文에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尹持忠 사건이나 飛語獄辭사건 등은 당시의 집권세력이나 道學派 문인들로 하여금 西學이 小品體 散文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확신하게 하였고 이는 文體反正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처럼 身分體制의 動搖와 思惟構造의 多元化라는 英正年間の 轉換期的 時代相은 小品體 散文의 대두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英正年間の 轉換期的 時代相과 아울러 小品體 散文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 요소로 晚明 公安派의 文學과 壬丙兩亂 이후 고조되어 온 反擬古의 文學觀을 들 수 있다. 이는 본고에서 논한 身分體制의 動搖와 思惟構造의 多元化라는 轉換期的 時代相에 비해 보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양상으로 小品體 散文의 대두에 영향을 미쳤다. 다만 본고에서는 지면관계상 이에 대한 논급을 피하고 별도의 후속 논문으로 미루었다.